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 계 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 논문은 청소년들의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설명하는 권위주의성격이론, 사회정체감이론 및 현실갈등이론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는 권위주의경향성, 사회정체성, 현실갈등인식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의 증진을 위한 교육방안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총 3,185명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가정자녀, 새터민, 조선족 등에 대한 태도에 권위주의적 공격주의, 한민족정체성, 현실갈등인식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실갈등인식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다문화교육의 방향설정 및 내용구성 시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들어옴으로써 한국사회가 위협해지거나 한국인의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대하여 객관적 정보와 중립적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내용임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주의, 다문화수용성, 권위주의성격이론, 현실갈등이론, 사회정체감이론

한국 사회는 최근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08년 5월 현재 체류외국인의 수가 110만 명을 돌파하여 주민등록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새터민은 1만 명을 넘어섰으며, 국내 결혼이주여성도 11만~16만으로 추정되고 있다(법무부, 2008). 이러한 숫자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례로 해외여행자나 미등록 체류자, 유학생 등을 포함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보다 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한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지역에 원래의 거주민과 다른 새로운

집단이 갑작스럽게 유입되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란, 그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됨에 따라 사고와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등 많은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에 못지 않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집단간 편견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분열의 문제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수 백 년 동안 흑백차별의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였으며, 현재는 인종차별의 문제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여전히 흑백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도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8고유과제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연구」 보고서의 자료를 일부 발췌하여 수정 및 재분석한 것임.

* 교신저자 : 양계민,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교총빌딩 9/10F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화 : 02) 2188-8831, E-mail : yangkm68@hanmail.net

인종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프리카 및 아랍계 저소득층 이민자들에 대한 암묵적인 차별이 가해지면서 2005년 11월에 대규모 폭동으로 발전한 사례가 있는 등 역사적으로 집단 간 갈등의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역사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온 경험이 전무하기에, 자신과 문화적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공존해야 하는지를 학습하고 연습할 기회가 없었다. 그 결과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문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의 문제 등 기존의 한국인 집단과 문화적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의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결혼이주자들을 대상의 한 연구를 보면 ‘한국인’들로부터 얼굴표정, 눈빛 등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종 취업이 어렵고, 주변사람들로부터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시와 불신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등 한국사회가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김이선, 김민정, 한진수, 2006). 결혼이주자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학교에서 놀림이나 차별을 받는다는지(전경숙, 정기선, 이지혜, 2007), 길거리를 다닐 때 쳐다보거나 수군거린다는지, 외모에 대해 직접적으로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2006). 외국인노동자들은 보다 더 부정적 편견의 대상으로, 잠재적 실제적 범죄자, 위험한 존재, 또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조선일보, 2008. 7. 9일자; 2008. 12. 20일자).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주로 인종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국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의 다양한 인종 및 민족들에 대한 편견을 측정한 결과(임성택, 2003), 한국의 청소년들은 백인에 대해서는 우수하고 합리적인 집단으로 평가한 반면, 흑인집단은 열등하고 비합리적인 집단으로 규정하는 등 차별적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청소년들의 타문화에 대한 관점을 분석한 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와 이은하(2007)의 연구에서도 역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배적 시각을 반영하여 인종주의적, 서구지향적 관점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예를 들면 까무잡잡한 피부의 아이들은 ‘아프리카’라는 별명으로 놀림의 대상이 되고 아프리카에 대한 태도도 ‘빨리 떠나고 싶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유럽이나 서구권은 ‘아름답다’, ‘빨리 적응하거나 수용하고 싶다’는 식의 분화적 태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7.6%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응답자 중 따돌림의 이유를 ‘엄마가 외국인이라서’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34.1%인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진수, 2005).

자신이 받는 부정적 대우나 성과가 차별 때문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안녕감(Crocker, Cornwell & Major, 1993; Crocker & Major, 1989; Major, 1994; Ruggiero & Taylor, 1995, 1997), 집단정체감(Branscombe, Schmitt, & Harvey, 1999; Jost & Banaji, 1994), 대인관계(Kaiser & Miller, 2001), 그리고 집단감등(Branscombe 등, 1999)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수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이 차별당하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면 자존심이 저하되고, 자신의 집단에 대한 정체감이 약화되거나(Jost & Banaji, 1994) 반대로 사회의 부당함에 대해 비판과 불만이 커지게 되고, 자신의 집단에 대한 동일시가 오히려 높아지며 그에 따라 사회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Crocker & Major, 1989; Turner & Brown, 1978).

우리 사회에서 차별로 인한 갈등은 주로 지역, 성별, 세대간 및 계층간 관계에 있어 발생해 왔으며, 최근 들어 학벌이나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및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사회갈등의 요소로 새로이 대두되어 왔다(김혜숙, 박수미, 2006). 이 중 특히 최근 들어 새로이 나타난 문화적 인종적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고착화 될 경우 서구나 다른 아시아 국가의 사례에서 이미 나타났던 인종적 문화적 갈등의 문제로 발전할 소지가 충분하기에, 편견적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기본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김혜숙, 2007).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세대로,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 심화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게 된다면 한국의 사회적 갈등을 더욱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청소년들의 편견적 태도의 과

정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 현상과 관련된 피상적 수준의 기술이 대부분이고, 다문화 수용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당위적 논의에 그칠 뿐,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일은 인간의 인지적 특성과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도 아니고 법이나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법과 정책을 근거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의 소프트웨어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는 다차원적인 작업인 것이다. 특히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회의 다수자들이 소수집단에 대해 가지는 편견과 고정관념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지, 어디로부터 유래하고, 어떤 사회적 영향에 의해 형성되는지, 또 어떤 방식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면밀한 분석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의 핵심은 간과한 채 피상적 논의만이 이루어질 뿐이며, 이러한 피상적 논의 위에 근거한 그 어떤 정책과 사업도 사회통합을 위한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양계민, 정진경, 2008).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을 갈등상황에 놓이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각 집단이 서로에 대해 지니는 편견(prejudice)을 들 수 있다. 편견이란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동반되는 부정적 정서와 평가적 태도를 말한다. 정서와 관련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정보나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사회적 인종적 범주에 근거해서 평가함을 의미하기에, 비논리적이며 비합리적일 수 있고(Sears, Freedman, & Peplau, 1985), 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유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은 고정관념, 학습, 접촉의 부족 및 사회정체감(Brewer, 1979; Brown, 1998; Fiske, 1998), 개인이 지닌 다양한 가치와 동기 등(김혜숙, 2002;

김혜숙, 2007; 민경환, 1989; Fisk, 1998; Gaertner & Dovidio, 1986; Katz & Hass, 1988; Mackie, Devos, & Smith, 2000; Schwartz, 1992)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요인 중 사회심리학에서 편견 및 사회적 갈등을 설명하는 대표적 기본 이론인 권위주의 성격이론, 사회정체감이론, 현실갈등이론에서 언급하는 대표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에 국내에서도 많은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 및 편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김혜숙, 2007; 김혜숙, 박수미, 2006; 민경환, 1989; 송관재, 이재창, 홍영오, 2001; 홍영오, 이훈구, 2001)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가정자녀, 중국동포, 새터민 등 문화적 인종적 배경이 다른 또는 섞여있는 소수집단을 중심으로 논의된 바 없으며 집단간 갈등을 설명하는 기본적 이론에서 중요시하는 요인을 각각 연구하였을 뿐이고, 각 요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함께 비교 분석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연령별로 비교하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 발달적 수준에 따른 교육내용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초등학교와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은 인식론적 사고의 발달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시기에는 실재주의 또는 절대주의적 관점을 지니기에 세상의 지식이 외부 세계에 존재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어떤 주장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들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중학교 이상이 되면서 모든 의견이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다는 다수주의적 관점을 가지게 되고, 성인이 되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증거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평가주의적 관점으로 전환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Kuhn & Dean, 2004), 실제 Tabak과 Weinstock (2005)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역별 인식론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학년이 증가할수록 점차 평가주의적 관점으로 발달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식론적 사고의 차이는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서도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발달적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령별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소수집단에 대

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령집단별로 산출하였을 경우 향후 다문화교육에서 연령에 따라 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대안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권위주의성격경향과 외집단 편견

권위주의 성격은 Adorno, Frenkel-Brunswik, Levinson, 그리고 Sanford가 1950년 출판한 저서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편견에 대한 심리역동적 접근을 대표하는 개념이다(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은 강자 앞에서는 약한 모습으로 권력과 권위에 무조건 맹종하고 순종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러한 권력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김재신, 한성열, 2004), 권위주의 성격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인지적 경직성, 애매함을 못 참는 성격 등을 지니고 있고(Block & Block, 1951; Frenkel-Brunswik, 1949; Rokeach, 1948), 소수집단의 성원을 배척하고 보수적인 정치·경제적 태도를 지니며, 권력자나 권위자의 태도를 수용하고(Izzett, 1971), 보다 권위에 복종적이고(Elms & Milgram, 1966),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후보에게 투표하며(Higgins, 1965), 자신의 아이들을 전통적 양육방식으로 기르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Levinson & Huffman, 1955).

특히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결과를 보면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유태인(Adorno 등, 1950), 흑인(Altemeyer, 1998; McFarland & Adelson, 1996, 1997; Whitley, 1998), 미국 원주민(Altemeyer, 1998), 여성(Altemeyer, 1998; Duncan, Petersom, & Winter, 1997), 동성애자(Whitley & Lee, 2000), 장애인(Noonan, Barry, & Davis, 1970), AIDS환자(Cunningham, Dollinger, Satz, & Rotter, 1991; Peterson, Doty, & Winter, 1993) 등 다양한 소수집단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로 민경환(1989)의 연구에서도 권위주의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호남인에 대해 차별적 태도를 지니고 있고, 빈곤계층 및 여성에 대해서도 호감이 적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그들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관재, 이훈구, 박수에

와 홍영호(1999)의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대할 때 더 고정관념적으로 지각하고,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의 권위주의가 사회적 소수집단을 평등한 성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주된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최현주와 정진경(1996)의 연구에서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피평가자의 성별에 따라 전반적인 수행 평가에 차이를 보였고, 남자인 경우 더 높은 평가를 하는 등 권위주의 성격이 차별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나타내었다.

권위주의 성격은 개인의 성격특성이지만 사회적 지배성향(social dominance)이나 편견과의 관련성(Bäckström & Björklund, 2007; Dru, 2007; Whitley & Lee, 2000)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적 경향으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며, 청소년들이 문화적 인종적 소수집단에 대해 지닐 수 있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에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과 외집단 편견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 이론으로 사회정체성이론을 들 수 있다. 사회정체성이란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집단의 일원이라는 지식과 그러한 멤버십에 부여되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로부터 생기는 개인의 자기 개념의 일부'로 정의된다(Tajfel, 1978). 국적, 종교, 성(性), 직업, 학교 등 다양한 사회범주에 소속함으로써 획득되는 사회정체성은 개인이 자신과 세상을 지각하는 중요한 참조틀이 된다(성한기, 2001). 사회정체감 이론은 사람들이 내집단에 대해 선호를 가지고 외집단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가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로 설명을 한다. 즉, 개인의 자기 개념 중에서 사회적 요소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정체성을 통한 자기 고양 책략으로 내집단 선호편파를 나타내며(Turner, 1985), 개인에게 긍정적 정체감을 제공해 주는 특수한 기능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집단내 유사성과 집단간 차이를 과장해서 지각하고(McGarty & Penny, 1988), 내집단 구성원을 외집단 구성원보다 무조건 더 좋아하며(Brewer, 1979), 외집단보다 내집단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내집단 편애현상을 나타내고(김금미, 한덕

웅, 2002a, 2002b; Oakes & Turner, 1980; Tajfel, 1978, 1981), 외집단 보다 내집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성한기, 1996) 등 자기 호의적인 사회 비교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좀 더 최근의 이론인 자기범주화이론(self categorization theory, Turner, 1985)은 Turner와 공동 연구자들이(Turner & Oakes, 1989; 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 사회정체성이론을 수정 보완한 이론으로, 사회정체성이론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자기범주화(self categorization)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인간이란 세상의 사물을 범주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자신과 유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내집단(ingroup)으로 범주화하고 자기와 다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외집단(outgroup)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람들이 두 집단 구성원들 간의 차이를 집단 내 구성원들의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지각하는 한, 이 대상들을 집단범주에 의거하여 지각하게 된다고 가정한다(Turner, Hogg, Oakes, Reicher, & Whetherell, 1987). 이러한 자기범주화를 통해 사회정체감을 갖게 되면 탈개인화(depersonalization)가 일어나게 되어 자신을 독특한 개인 이라기보다 사회적 범주의 한 성원으로 규정하게 되는데, 범주화는 정보처리를 용이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왜곡된 지각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기에, 사회적 고정관념, 동조행동, 집단응집성, 자민족중심주의, 집단간 갈등, 사회적 영향, 집단의사결정 등의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Turner, 1987).

인종범주는 시각적으로 매우 눈에 띄는 범주일 뿐 아니라 그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국적, 지위를 예측하게 해주는 생물학적 범주이다(조혜자, 방희정, 2006).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에서 인종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역사와 현재의 사회적 지위, 종교적 취향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Baumeister, 1998). 인종에 대한 범주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피부색으로 일차적인 인종 범주화는 시각적인 피부색을 기초로 이루어진다(Fiske, 1998). 특히 백인과 흑인은 시각적으로 현저하기 때문에 범주화가 신속히 일어나는데 이러한 시각적 범주화는 자동적으로 인종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키고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기 쉽다(조혜자, 방희정, 2006). 따라서 최근 들어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 및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피

부색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인종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편견과 차별이 유발될 수 있음은 자명하며, 실제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 중에서도 중국 동포 산업연수생들에게 가장 호의적이고 비한국계 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게 가장 적대적이어서(설동훈, 1999) 혈통에 근거한 범주화가 사회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정체감이론과 자기범주화이론은 한국사회의 외국인, 다문화가정 자녀, 새터민 등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및 차별을 설명하는 데 설득적이기에 본 연구에서 국내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선정하여 청소년들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현실적 이해 갈등(Realistic conflict)과 외집단 편견

현실적 갈등이론은 사회정체감이론과 함께 집단갈등을 설명하는 데 언급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론이다.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람들이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됨에 따라 적개심이 생기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동반되면서 이 부정적 평가가 집단 내에서 공유되고 부풀려지고 자연스럽게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된 결과 집단 간 갈등이 유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Sherif, 1966). Taylor와 Moghaddam(1987)은 현실갈등이론이 세 가지를 가정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첫째,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성을 지닌다. 둘째, 갈등은 양립되지 않는 집단 이익의 결과 때문에 빚어진다. 셋째, 주로 집단 이익의 양립가능성에 의해 집단간 행동의 사회심리적 측면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고정관념 또는 비호의적 귀인은 두 집단 간의 양립불가능한 이익에서 발생되었다고 보며,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기 어려운 돈, 명성, 천연자원, 에너지 등 가치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기에 한 집단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들을 점유하게 되면 다른 집단은 그 자원을 소유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Forsyth, 1999).

현실적 갈등이론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연구로 Aronson과 Gonzalez(1988)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미국 내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세기

초에 철도건설 등 노역에 종사하기 위해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받았을 때는 이들과 백인간의 엄격한 선이 그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쟁자체가 배제된 구조였다. 즉, 두 집단 간에 현실적 갈등은 존재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 때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부지런하고, 온순하고, 준법정신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끝나고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이 귀향하여 구직난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동양인과 미국인간의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인들에 대한 평가는 ‘뻔뻔스럽고, 교활하고, 우둔하다’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Olzak와 Nagel(1986)의 연구에서도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남아프리카, 벨기에, 독일 등과 같은 나라에서 인종 간 격리정책이 무너지고 생활에서 서로 경쟁할 일이 많이 있을 때 편견이 더 확산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현실갈등이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연구로 Wimmer(1977)는 다문화사회에서 인종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이 이주민 집단과 원주민 집단 간의 현실적 이익이 충돌할 때라고 설명한 바 있고, Coenders, Lunnens, 그리고 Scheepers(2003) 역시 다문화사회에서 원주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민족을 차별하는 것이 외국인 이주자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비교적 교육수준이 낮은 단순 노동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현실적 갈등이론을 지지한 바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 서로 경쟁할 상황이 유발됨으로써 상대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형성되어 편견이 발달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갈등이론의 핵심이다. 현실갈등이론은 요즘과 같은 경제적 불황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먼저 정리하고 하는 등의 현실적 문제들을 잘 설명해주는 이론으로 역시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여전히 설득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지금까지 집단적 차원의 갈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회심리학적 이론인 권위주의성격이론, 사회정체감이론, 그리고 현실적 갈등이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중 권위주의 성격이론은 개인의 성격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사회정체감이론과 현실적 갈등이론은 개인의 성격이 아닌 집단간 관계 및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정체감이론과 현실적 갈등이론의 차이는 주요 관심사가 현실

적인 문제이나 상징적인 문제이냐로, 현실적 갈등이론에서는 외집단에 대한 거부가 주로 일자리나 권력, 경제적 이득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는 반면, 사회정체감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자아존중감, 자기-가치감, 사회적인 정체성 등을 유지하고자 외집단과 내집단을 비교하는 데서 갈등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실갈등이론은 가치 있는 결과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에 초점을 둔다면, 사회정체감이론은 다른 집단보다 더 나아보이기 위한, 또는 적어도 더 나쁘지는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초점을 둔다(Insko, Schpler, Kennedy, Dahl, Graetz, & Drigotas, 1992).

각 이론들은 모두 다문화적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이론들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담론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고 보다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문화교육에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 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 요인들 중 어떤 요인이 다문화수용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결과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높은 이론이 밝혀진다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현재 아무런 근거없이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난무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에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과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다문화상황에서 소수집단¹⁾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권위주의성격이론, 사회정체감이론, 현실적 갈등이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요인의 상대적 설명력을 연령별로 파악하여 청소년 다문화교육의 방향성과 내용구성에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1) 소수집단은 인종적 문화적 소수집단 외에도 다양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가정자녀, 새터민, 중국 조선족 등 한국사회 내에서의 문화적 인종적 소수집단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전국의 강원, 경기, 경상, 서울, 전라, 충청 등 전국 6개 시도의 초등학교 5, 6학년 761명, 중학교 1, 2, 3학년 1,229명, 고등학생 1, 2, 3학년 1,195명을 포함한 총 3,185명이었다. 대도시에서 56.6%, 중소도시 28.5%, 군지역 14.9%를 표집하였고,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578명(49.5%), 여학생이 1,603명(50.4%)으로 각각 50% 수준이었다.

조사절차

본 조사는 2008년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사이에 전국의 6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 층화무선할당표집을 한 후, 조사원이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와 답례품을 함께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한 후 곧바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측정도구

권위주의적 공격성

개인의 권위주의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경환(1989)이 개발한 한국판권위주의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 권위주의성격척도는 9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34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데 있어 문항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응답의 성실성 및 집중도 저하의 문제가 우려되어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 지배지향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권위주의적 공격성’만을 포함시켰다(Passini, 2008; Whitley, 1998). 권위주의적 공격성의 내용은 ‘파렴치한, 불량배, 걸인 등을 무슨 수를 써서 없앨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격한 교육과 강인한 결단력 그리고 가족과 나라를 위해 분투하려는 의지력이다’, ‘사회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이 충분치 못하다면 비상조치라도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의 명예에 모욕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등 총 4개의 문항이었고 ‘강하게 불찬성(1)’부터 ‘강하게 찬성(5)’까지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되어있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alpha=.61$ 이었다.

한민족정체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민족 정체성을 측정하였다. 사회정체성을 한민족 정체성으로 개념화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편견의 대상으로 정한 소수 집단이 외집단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민족’이라는 준거이고, 그와 상응하는 내집단 개념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측정을 위하여 기존에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배대한, 1994; 박준식, 이재혁, 한준, 1999; 오경석, 2007; 윤경로, 2004)에서 단일민족정체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단일민족정체성은 한국인이 단일민족이라는 데 대한 자부심과 관련된 문항으로는 ‘우리나라는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인은 단일민족으로서 순수성이 높은 국민이다’, ‘한국이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인은 가능한 한국인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에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신뢰도는 $\alpha=.85$ 로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현실적 갈등인식

현실적 갈등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럽 국가들의 인종적 편견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EUMC(EU Monitoring Center for Racism and Xenophobia)의 보고서에서 ‘종족적 배제주의’라고 정의한 개념 중 ‘이주로 인한 위협’이라는 요인을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에서 번역하고 수정한 척도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우리나라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의 총 세 문항이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원래 척도 상에는 ‘외국인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문항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세 문항의 신뢰도는 $\alpha=.75$ 로 문항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수집단 중 주로 한국 내에서 문화적 인종적 배경준거에 의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네 집단, 즉,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가정자녀, 새터민, 중국조선족을 대상으로 하고, 각 집단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청소년들의 경우 새터민이나 국제결혼가정자녀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새터민의 경우 괄호안에 '탈북자'라는 용어를 함께 제시하였고, 국제결혼가정자녀는 '혼혈'이라는 용어를 함께 제시하였다.

인지 :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중 인지적 측면은 양계민과 정진경(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 기존의 문헌에서 밝혀진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문항을 포함하여, 유능성, 도덕성, 성실성, 공격성, 신뢰성, 공손함 등 6가지 요인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문항 각각 2가지씩 제작하여 총 1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신뢰할 수 있다', '거부감이 든다', '친절하다', '거만하다', '유능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도덕적이다', '게으르다', '합리적이다', '감정적이다', '평화적이다', '폭력적이다' 등으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었다. 요인분석 결과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의 두 요인이 산출되었고, 그 중 '감정적이다'의 문항은 본래 부정적인 의미로 포함시켰는데, 분석결과 두 요인에 유사한 정도의 요인부하량을 보였고, 오히려 긍정적 태도의 부하량이 높은 등 연구자의 가정과 다른 측면을 보여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삭제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를 보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긍정적 태도가 $\alpha=.83$ 이고 부정적 태도가 $\alpha=.75$ 로 신뢰로운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대상의 경우도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국제결혼가정 자녀 대상 긍정적 태도요인의 신뢰도와 부정적 태도요인의 신뢰도가 각각 $\alpha=.86$, $.75$, 새터민 대상일 때 $\alpha=.86$, $.82$, 중국조선족 대상일 때 $\alpha=.89$

와 $.83$ 임)

정서 :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중 정서적 측면은 역시 양계민과 정진경(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긍정적 정서 3문항, 부정적 정서 3문항, 연민정서 3문항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내용으로 보면 '정이 간다', '불쌍하다', '피하고 싶다', '호기심이 생긴다', '가엾다', '안되 보인다', '싫다', '좋다', '두렵다' 등이었고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되어있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연구자가 사전에 의도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요인이 산출되었다.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정서적 요인 중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긍정적 정서가 $\alpha=.79$, 부정적 정서가 $\alpha=.81$, 연민정서가 $\alpha=.89$ 로 전반적으로 신뢰로운 수준이었고 다른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도 유사한 수준이었다(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연민정서의 순으로 $\alpha=.74$, $.85$, $.90$, 새터민 대상일 경우 $\alpha=.78$, $.80$, $.89$, 조선족이 대상인 경우 $\alpha=.77$, $.82$, $.89$ 임)

행동 :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중 행동적 측면은 Bogardus(1925)의 사회적 거리감의 개념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는데, 소수집단에 대해 '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연인이 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등의 총 다섯 개 문항을 구성하고,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응답으로 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alpha=.84$ 였고, 다른 집단에 대한 응답으로 산출한 결과는 모두 $.84$ 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척도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제결혼가정 자녀 대상 $\alpha=.88$, 조선족 대상 $\alpha=.88$, 새터민 대상 $\alpha=.88$).

결 과

연령별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차이

본 연구는 초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연구의 주요 목적과 관련된 분석을 하

표 1.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 대상 집단별

태도	요인	하위요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F
인지	긍정	외국인노동자	2.98(.64) _a	2.88(.57) _b	2.84(.59) _b	2.89(.60)	11.4 ^{***}
		국제결혼자녀	3.00(.67)	2.98(.58)	3.01(.54)	3.00(.59)	-
		새터민	2.74(.71) _b	2.83(.66) _a	2.80(.65) _a	2.80(.67)	4.29 [*]
		조선족	2.89(.70)	2.92(.62)	2.89(.59)	2.90(.63)	-
	부정	외국인노동자	2.57(.69) _b	2.67(.62) _a	2.70(.64) _a	2.66(.64)	11.2 ^{***}
		국제결혼자녀	2.53(.68) _b	2.66(.63) _a	2.64(.62) _a	2.62(.64)	10.23 ^{***}
		새터민	2.73(.76)	2.74(.68)	2.72(.66)	2.73(.69)	-
		조선족	2.62(.67) _b	2.76(.66) _a	2.75(.64) _a	2.73(.66)	11.36 ^{***}
정서	긍정	외국인노동자	2.92(.80) _a	2.87(.69) _{ab}	2.84(.69) _b	2.87(.72)	-
		국제결혼자녀	2.89(.79) _b	2.97(.64) _a	3.01(.66) _a	2.97(.69)	6.75 ^{***}
		새터민	2.70(.87) _b	2.87(.74) _a	2.90(.75) _a	2.84(.78)	15.64 ^{***}
		조선족	2.80(.85) _b	2.90(.67) _a	2.89(.67) _a	2.88(.72)	5.33 ^{**}
	부정	외국인노동자	2.60(.86) _c	2.74(.77) _b	2.83(.78) _a	2.74(.80)	17.60 ^{***}
		국제결혼자녀	2.53(.88)	2.59(.74)	2.54(.75)	2.55(.78)	-
		새터민	2.76(.92)	2.77(.78)	2.73(.79)	2.75(.82)	-
		조선족	2.61(.86) _b	2.71(.73) _a	2.68(.76) _a	2.68(.78)	4.53 [*]
	연민	외국인노동자	2.89(.99) _c	3.07(.82) _b	3.22(.85) _a	3.08(.89)	32.24 ^{***}
		국제결혼자녀	2.60(.91) _b	2.71(.77) _a	2.71(.79) _a	2.68(.82)	4.73 ^{**}
		새터민	2.72(.97) _c	2.93(.84) _b	3.01(.84) _a	2.91(.88)	24.50 ^{***}
		조선족	2.62(.90) _c	2.75(.74) _b	2.85(.77) _a	2.76(.82)	21.69 ^{***}
행동	사회적 거리	외국인노동자	2.72(.86) _b	2.80(.74) _a	2.83(.79) _a	2.79(.79)	4.91 ^{**}
		국제결혼자녀	2.79(.91) _c	2.96(.82) _b	3.13(.86) _a	2.98(.87)	35.68 ^{***}
		새터민	2.48(.94) _b	2.73(.86) _a	2.81(.90) _a	2.70(.91)	30.79 ^{***}
		조선족	2.66(.92) _b	2.80(.81) _a	2.85(.83) _a	2.78(.85)	12.18 ^{***}

* $p < .01$, ** $p < .01$, *** $p < .001$, Duncan : $a > b > c$

기 이전에 우선 초중고 청소년들이 소수집단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초중고 청소년들이 각 소수집단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태도 평균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중학생과 고등학생집단의 태도가 유사하고 초등학생 집단이 구분되는 특성을 보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긍정적인 집단은 초등학생 집단이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긍정적 요인에서 초등학생 집단이 중고등학생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인지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과 정서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긍정적 인지요인에서는 세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정적 인지요인에서는 중고등학생이 초

등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정서의 경우는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점수는 높고 부정적인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연민의 정서도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에 비해 새터민과 조선족의 경우는 그와 상반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새터민의 경우 중고등학생들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등학생의 경우 새터민에 대한 태도에서 인지와 정서적 측면의 긍정적 요인 및 사회적 거리에서 모두 초등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연민정서도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와 정서의 부정적 요인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조선족의 경우는 인지적 측면의 긍정요인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정서의 긍정적 측면에서 새터민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 집단이 초등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표 2. 권위주의적 공격성, 한민족정체성, 현실적갈등인식의 집단별 평균차이

변인	집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F
권위주의적 공격성		3.17(.58) _a	3.00(.61) _b	3.05(.61) _b	3.06(.61)	18.17***
한민족정체성		3.62(.73) _a	3.37(.84) _b	3.19(.90) _c	3.36(.86)	58.64***
현실적 갈등 인식		2.65(.87)	2.72(.86)	2.73(.86)	2.73(.86)	-

*** $p < .001$, Duncan : $a > b > c$

나타내었다. 그러나 조선족의 경우 새터민과는 달리 인지 및 정서의 부정적 측면에서 중고등학생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새터민과는 또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소수집단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태도의 행동적 측면을 보는 사회적 거리의 요인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소수집단에 대해 고등학생들의 태도가 가장 개방적이었고, 중학생, 초등학생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적 공격성, 한민족정체성, 현실갈등인식의 연령집단별 평균차이

각 연령집단별로 권위주의적 공격성, 한민족정체성, 현실갈등인식요인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권위주의적 공격성은 초등학생집단이 높고 중고등학생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민족정체성은 초등학생집단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다. 현실적 갈등인식의 수준은 학교급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적 공격성, 한민족정체성, 현실갈등인식의 관계

권위주의적 공격성, 한민족정체성, 현실갈등인식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권위주의적 공격성, 한민족정체성, 현실갈등인식 세 요인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세 가지 절차를 진행하였다. 첫째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요인들 간의 상관이 최소 $r = .14$ 에서 최대 $r = .25$ 로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은 있되 그 정도는 크지 않았다. 둘째로, 세 요인에 포함되는 모든 문항을 포함

표 3. 권위주의적 공격성, 한민족정체성, 외국인 이주의 위협요인간의 상관관계

	권위주의적공격성	한민족정체성
한민족정체성	.25***	
현실갈등인식	.14***	.19***

*** $p < .001$

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문항들이 연구자의 개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서로 독립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는데, 세 개의 독립변인 모두에서 Tolerance는 .05보다 크고, VIF는 2보다 작았다. 따라서 세 개의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적 공격성, 한민족정체성, 현실갈등인식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권위주의적 공격성, 한민족정체감, 그리고 현실적 갈등인식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stepwise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아래의 표 5~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각 표에서 나타나듯이 초·중·고등학생들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많은 부분 현실적 갈등 인식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초등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 5에 나타나듯이 소수집단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현실적 갈등인식요인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의 부정적인 측면과 정서의 긍정 및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모두 단독으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새터민에 대한 태도가 특이한데 인지의 긍정적인 면, 정서의 긍정적인 면, 그리고 연민, 행동의 측면에서 세 요인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표 4. 권위주의적 공격성, 한민족정체성, 현실적 갈등인식의 요인분석결과

요인명	문항	요인부하량		
		1	2	3
한민족 정체성	한국인은 단일민족으로서 순수성이 높은 국민이다	.82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76		
	한국이 단일민족이라는 사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72		
	나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인 것이 자랑스럽다	.71		
	우리나라는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70		
	한국인은 가능한 한국인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1		
현실갈등 인식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780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66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우리나라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66	
권위주의적 공격성	파렴치한, 불량배, 걸인들을 무슨 수를 써서 없앨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64
	사회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이 충분치 못하다면 비상조치라도 사용하여야 한다			.56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격한 교육과 강인한 결단력 그리고 가족과 나라를 위해 분투하려는 의지력이다			.50
	우리의 명예에 모욕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34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역시 태도의 모든 영역인 인지, 정서, 행동의 측면에서 현실적 갈등인식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집단의 경우 특이한 사항은 인지의 긍정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현실적 갈등인식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민족 정체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관계의 방향이 정적(+)

이었다. 즉, 한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인지태도가 높아졌고, 이는 국제결혼가정자녀를 제외한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조선족 집단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지 및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긍정적 정서태도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 다른 방향의 결과를 산출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태도의 모든 영역, 모든 대상 집단

표 5. 권위주의적공격성, 한민족정체성, 현실적갈등인식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초등학생)

요인	종속 변인	태도 대상	독립변인	β	t	R^2	ΔR^2
인지	긍정	외국인노동자	현실적 갈등 인식	-.21	-5.52***	.039	-
			한민족정체성	.13	3.48***	.057	.018
			국제결혼가정자녀	-.09	-2.19*	.007	-
			새터민	-	-	-	-
			조선족	-.10	-2.53*	.010	-
부정	외국인노동자	현실적 갈등 인식	.24	6.31***	.056	-	
		국제결혼가정자녀	.22	5.92***	.050	-	
		새터민	-	-	-	-	
		조선족	.17	4.58***	.030	-	

표 5. 계속

요인	종속 변인	태도 대상	독립변인	β	t	R ²	ΔR^2	
정서	긍정	외국인노동자	현실적 갈등 인식	-.10	-2.60**	.010	-	
			국제결혼가정자녀	현실적 갈등 인식	-.11	-2.87**	.012	-
			새터민	-	-	-	-	-
			조선족	-	-	-	-	-
	부정	외국인노동자	현실적 갈등 인식	.22	5.93***	.050	-	
			국제결혼가정자녀	현실적 갈등 인식	.19	5.13***	.036	-
			새터민	현실적 갈등 인식	.09	2.43*	.009	-
			조선족	현실적 갈등 인식	.16	4.30***	.027	-
	연민	외국인노동자	-	-	-	-	-	
			국제결혼가정자녀	한민족정체성	.09	2.40*	.009	-
			새터민	현실적 갈등 인식	.08	2.11*	.014	.005
			조선족	-	-	-	-	-
행동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노동자	현실적 갈등 인식	-.15	-3.94***	.020	-	
			한민족정체성	.09	2.26*	.028	.008	
		국제결혼가정자녀	현실적 갈등 인식	-.15	-3.87***	.022	-	
			새터민	-	-	-	-	
		조선족	현실적 갈등 인식	-.12	-3.15**	.014	-	

* $p < .05$, ** $p < .01$, *** $p < .001$

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실적 갈등인식요인이었고, 정서의 긍정적인 측면과 연민에 대해서 한민족 정체성이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는 조선족 대상의 평가에서 인지의 긍정적인 면, 정서의 긍정적인 면, 그리고 연민정서에서 한민족정체성이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새터민에 대한 긍정적 정서, 연민정서

에서도 한민족정체성이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먼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초, 중, 고등학생 집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부정적인 태도의 측면에서 현실적 갈등인식요인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등학생들은 소수

표 6. 권위주의적공격성, 한민족정체성, 현실적갈등인식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중학생)

요인	종속 변인	태도 대상	독립변인	β	t	R ²	ΔR^2
인지	긍정	외국인노동자	현실적 갈등 인식	-.23	-7.57***	.046	-
			한민족정체성	.07	2.30*	.050	.016
		국제결혼가정자녀	현실적 갈등 인식	-.19	-6.23***	.031	-
			권위주의적공격성	.08	2.53*	.037	.006
		새터민	현실적 갈등 인식	-.14	-4.48***	.015	-
			한민족정체성	.08	2.65**	.021	.006
	부정	조선족	현실적 갈등 인식	-.14	-4.64***	.014	-
			한민족정체성	.13	4.38***	.031	.017
		외국인노동자	현실적 갈등 인식	.28	9.83***	.080	-
			국제결혼가정자녀	현실적 갈등 인식	.23	7.92***	.053
		새터민	현실적 갈등 인식	.20	6.87***	.041	-
			조선족	현실적 갈등 인식	.22	7.37***	.047

표 6. 계속

요인	중속 변인	태도 대상	독립변인	β	t	R ²	ΔR^2	
정서	긍정	외국인노동자	현실적 갈등 인식	-.14	-4.80***	.017	-	
			권위주의적공격성	.09	3.15**	.026	.009	
		국제결혼가정자녀	현실적 갈등 인식	-.13	-4.41***	.017	-	
			새터민	-.78	-2.61**	.006	-	
			조선족	.09	2.79**	.005	-	
	부정	외국인노동자	현실적 갈등 인식	-.08	-2.76**	.012	-	
			권위주의적공격성	.23	7.87***	.052	-	
		국제결혼가정자녀	현실적 갈등 인식	.23	7.94***	.053	-	
			새터민	.15	4.99***	.022	-	
			조선족	.24	8.08***	.055	-	
		연민	외국인노동자	권위주의적공격성	.14	4.63***	.016	-
				현실적 갈등 인식	-.11	-3.79***	.028	-
국제결혼가정자녀	현실적 갈등 인식		.07	2.40*	.007	-		
	한민족정체성		.06	2.03*	.011	.004		
	새터민		-	-	-	-		
행동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노동자	현실적 갈등 인식	.07	2.39*	.005	-	
			권위주의적공격성	-.16	-5.47***	.026	-	
		국제결혼가정자녀	현실적 갈등 인식	-.19	-6.42***	.036	-	
			새터민	-.14	-4.74***	.020	-	
			조선족	-.17	-5.73***	.026	-	
		조선족	현실적 갈등 인식	-.17	-5.73***	.026	-	
			권위주의적공격성	.07	2.28*	.031	.005	

* $p < .05$, ** $p < .01$, *** $p < .001$

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요인의 영향력이 중고등학생집단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태도 영역에서 주로 현실적 갈등인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새터민에 대해서는 세 요인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초등학생들이 새터민을 다른 시각에서 평가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급속히 변화해가는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에서 문화적 인종적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파악하고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설명하는 사회심리학의 세 가지 이론, 즉, 권위주의적 성격이론, 사회정체감이론, 그리고 현실적 갈등이론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공격성, 한민족정체성, 현실갈등요인들을 중심으로 상대적 설명력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다문화교육의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

사점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청소년들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은 현실적 갈등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로,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국내의 문화적 인종적 소수집단이 한국사회에 피해를 주거나 제한된 자원을 빼앗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연령이 어린 초등학생들의 경우 그러한 경향성이 더 강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외국에서 이주민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내집단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한국사회에 현실적·상징적 실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향후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외국인노동자나 국제결혼여성, 새터민 등 이주민들이 국내에 유입됨으로 인하

표 7. 권위주의적공격성, 한민족정체성, 현실적갈등인식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고등학생)

요인	중속 변인	태도 대상	독립변인	β	t	R ²	ΔR^2
인지	긍정	외국인노동자	현실적 갈등 인식	-.27	-9.28***	.073	-
		국제결혼가정자녀	현실적 갈등 인식	-.16	-5.20***	.024	-
		새터민	현실적 갈등 인식	.13	-4.20***	.016	-
		조선족	현실적 갈등 인식	-.10	-3.33***	.006	-
			한민족정체성	.10	3.30***	.015	-
	부정	외국인노동자	현실적 갈등 인식	.23	7.99***	.055	-
		국제결혼가정자녀	현실적 갈등 인식	.26	9.06***	.069	-
		새터민	현실적 갈등 인식	.22	7.37***	.047	-
		조선족	현실적 갈등 인식	.20	6.89***	.042	-
			한민족정체성	.12	3.74***	.021	-
정서	긍정	외국인노동자	현실적 갈등 인식	-.23	-7.53***	.042	-
			한민족정체성	.09	3.05**	.050	.008
		국제결혼가정자녀	현실적 갈등 인식	-.14	-4.81***	.021	-
		새터민	현실적 갈등 인식	-.15	-4.94***	.018	-
			한민족정체성	.07	2.10*	.022	.004
	부정	조선족	현실적 갈등 인식	-.12	-3.96***	.008	-
			한민족정체성	.12	3.74***	.021	-
		외국인노동자	현실적 갈등 인식	.29	9.87***	.081	-
		국제결혼가정자녀	현실적 갈등 인식	.28	9.27***	.086	-
			권위주의적공격성	.08	2.70**	.092	-
행동	연민	새터민	현실적 갈등 인식	.28	7.75***	.052	-
		조선족	현실적 갈등 인식	.23	7.87***	.053	-
		외국인노동자	현실적 갈등 인식	-.15	-4.76***	.12	-
			한민족정체성	.07	2.10*	.02	-
		국제결혼가정자녀	권위주의적공격성	.09	3.06**	.01	-
	사회적 거리감	새터민	현실적 갈등 인식	.09	2.76**	.02	-
			한민족정체성	-.11	-3.43***	.008	-
		조선족	현실적 갈등 인식	.07	2.21*	.012	-
			한민족정체성	.09	3.07**	.009	-
		외국인노동자	현실적 갈등 인식	-.24	-8.25***	.058	-
행동	사회적 거리감	국제결혼가정자녀	현실적 갈등 인식	-.26	-8.80***	.084	-
			한민족정체성	-.09	-2.89**	.090	-
		새터민	현실적 갈등 인식	-.24	-8.15***	.057	-
		조선족	현실적 갈등 인식	-.23	-7.85***	.053	-

* $p < .05$, ** $p < .01$, *** $p < .001$

여 한국사회에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경제적 문화적으로 한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집단 대상의 교육에서는 현실적 갈등과 관련된 지나친 오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현실적 갈등요인 이외에 한민족 정체성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생 집단의 경우 한민족 정체성은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고등학

생 집단의 경우는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중 인지와 정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거리감에서는 한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대해 멀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인지와 정서 등 인식수준에서의 수용성은 높지만 국제결혼가정자녀를 내집단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에서는 덜 수용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한민족정체성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권위주의적 공격성은 세요인 중 가장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고등학생집단에서 권위주의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부정적 정서태도와 연민의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교 집단의 경우 권위주의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지태도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긍정적 정서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식과는 상반된 결과를 산출하였고, 초등학생의 경우는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에 대해 현재의 자료로써는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사후 추론을 해본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문항이기에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공격성이 청소년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린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권위주의적 성격 측정문항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서 연령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 질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변화양상을 보였는데,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 모두 초등학생보다 높고 연민의 정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수집단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어느 정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사회적 거리의 점수에서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의 순으로 가깝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가 일관되게 긍정적이거나 일관되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평가의 차원과 대상에 따라 복합적이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경우 인지적 수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정서적으로 또는 자신과 관계를 맺는 실질적 문제에 당면해서는 중고등학생에 비해서 덜 개방적임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연령이 어릴수록 소수집단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하여 자신의 실제 문제로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사회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실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인종적 문화적 소수집단의 문제는 TV에서나 볼 수 있는 어느 먼 지역의 이야기일 뿐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시켜서 생각해본 적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교육에서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에게 각 연령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다문화교육과정을 포함시키되, 인지적 수준의 교과서적 태도를 넘어서 자신의 문제로 인식을 한 뒤, 보다 깊은 수준의 태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성격에 초점을 두어 연구했으나 최근 들어 Pratto, Sidanus, Stallworth, 그리고 Malle(1994) 등은 권위주의적 성격과 개념적으로 관련되는 특성인 사회지배경향성(social dominance orientation)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지배경향성이란 자신이 속한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외집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경향성을 말하는데, 권위주의경향성은 내집단의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한 복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사회지배경향성은 집단간 관계에서 외집단에 대한 지배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Altemeyer, 1998; Pratto et al., 1994). 이러한 사회지배경향성 역시 권위주의 성격이론과 마찬가지로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Altemeyer, 1998; McFarland & Adelson, 1996; Pratto et al., 1994), 개념적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와 더 관련이 높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간 관계에서 외집단에 대한 지배에 관심을 두는 사회지배경향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감과 현실적 이해갈등요인을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단순화하여 분석하였으나 사실상 현실갈등이론과 사회정체감이론은 완전히 독립적인 이론이라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현실적 갈등요인의 정도에 따라 사회정체감이 달라지는지, 반대로 사회정체감의 수준에 따라 현실적 갈등요인이 달라지는지, 또한 그에 따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 등 좀 더 구체적인 상황적 요인을 밝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좀 더 면밀한 측정을 수행했어야 한다는 면에서 결과의 해석이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 우선 권위주의성격을 측정하기 위하여 원래 9개 요인의 척도 중에서 '권위주의적 공격성'의 한 개 요인을 선정하여 사용하였기에 권위주의성격경향성을 볼 수는 있으나 권위주의성격의 완전한 측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현실적 갈등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EUMC에서 개발된 증폭배제주의척도 중 '이주로 인한 위협'요인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는데, 그 문항에는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고, 국제결혼가정자녀, 새터민, 조선족 등으로 인한 위협과 갈등은 포함시키지 않아 각 대상과의 현실갈등을 개념화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국제결혼가정자녀, 새터민, 조선족 등이 모두 외부로부터 이주한 사람 또는 이주의 결과 나타난 집단이라는 점에서 연구에 포함된 대상 소수집단이 현실적으로 경쟁적 또는 갈등적 집단이라는 인식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추후연구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각 대상 집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항을 개발하여 변인들 간의 명확한 관계를 타당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민족 정체성의 경우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갈등 인식을 측정할 것에 비하여 보다 덜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측정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현실적 갈등인식이 청소년들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측정의 구체성 수준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많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집단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는 현실갈등인식, 사회정체성, 권위주의성격 등의 영향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다문화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제안사항을 기초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수행되고 그 결과들이 축적된다면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고정관념현상을 파악하는 데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구성하는 데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금미, 한덕웅 (2002a). 집단의 지위, 집단범주화 및 지위관련성이 집단간 분배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2), 147-171.
- 김금미, 한덕웅 (2002b). 집단간 지위, 성별사회정체성 및 지위관련성이 집단간 분배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3), 1-14.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신, 한성열 (2004). 권위주의 성격에 따른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에서의 판단 :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8(3), 94-114.
- 김혜숙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 35-50.
-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김혜숙, 박수미 (2006). 집단지위정당성, 지위안정성 및 집단정체성이 차별지각에 미치는 영향 : 성차별과 학력차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0(4), 71-95.
- 민경환(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4(2), 146-168.
- 박준식, 이재혁, 한준 (1999).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 의식 조사.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 배대한 (1994). 한민족의 정체성문제와 교육개발. 해외동포, 63권, 20-25.
- 법무부 (2008). 외국인정책본부 자료. www.moj.go.kr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설동훈,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성한기 (1996). 집단구성원의 태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내집단 규범의 영향 : 집단국화의 동기적 기제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10(1), 99-114.
- 성한기 (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3), 33-48.
- 송관재, 이재창, 홍영오 (2001).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게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 지체장애인과 윤락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7(1), 119-136.
- 송관재, 이훈구, 박수애, 홍영오 (1999). 권위주의성격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1권 특집호, 97-115.
- 양계민, 정진경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경석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서울 : 한울아카데미.
- 윤경로 (2004). 재미한인의 민족정체성과 애착의 세대간 차이. *재외한인연구*, 제6호, 66-95.
- 임성택 (2003). 세계시민교육관점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한국학생들의 고정관념분석. *교육학연구*, 41(3), 275-301.
- 전경숙, 정기선, 이지혜 (2007). 다문화 교육 정책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조선일보(2008) 외국인 2명, 금은방에 가져금화 수 억 원에 팔고 도주. 2008. 12. 20일자.
- 조선일보(2008) 외국인 범죄율은 낮지만 건수는 크게 늘어. 2008. 7. 9일자.
- 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 (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 학생의 수용성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혜자, 방희정 (2006). 암묵적인 자기 범주화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1(2), 245-265.
- 최현주, 정진경 (1996). 도식의 사용이 수행평가에 미치는 영향 : 성 도식과 권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0(1), 71-18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2.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 홍영오, 이훈구 (2001). 암묵적 연합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1), 185-204.
- Adorno, T., Frenkel-Brunswik, E., Levinson.,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Altemeyer, B. (1998).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30, pp.47-92). San Diego : Academic Press.
- Aronson, E., & Gonzalez, A. (1988). Desegregation, Jigsaw, and the Mexican experience. In P. A. Katz & D. A. Taylor(Eds.), *Eliminating racism : Profiles in controversy*(pp.301-314). New York : Plenum.
- Bäckström, M., & Björklund, F. (2007). Structural modeling of generalized prejudice : The role of social dominance, authoritarianism, and empathy.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28(1), 10-17.
- Baumeister, R. (1998). The self.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pp.690-739). NY : McGrawHill.
- Block, J., & Block, J. (1951). An investigation of ambiguity as an emotion and perceptual personality variables. *Journal of Personality*, 19, 303-311.
- Bogardus, E. S. (1925). Measuring social distance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299-308.
- Branscombe, N. R., Schmitt, M. T., & Harvey, R. D. (1999). Perceiving pervasive discrimination among African-Americans : Implications for group identification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35-149.
- Brewer, M. B.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6, 307-324.

- Brown, R. (1988). *Group processes : Dynamic within and between groups*. New York : Ball Black.
- Coenders, M., Lunners, M., & Scheepers, P. (2003). Majority populations' attitudes towards migrants and minorities-report for the European Monitoring Venter on Racism and xenophobia, [http : //eumc.eu.int](http://eumc.eu.int).
- Crocker, J., & Major, B. (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 608-630.
- Crocker, J., Cornwell, B., & Major, B. (1993). The stigma of overweight : Affective consequences of attributional ambigu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0-70.
- Cunningham, J., Dollinger, S. J., Satz, M., & Rotter, N. (1991). Personality correlates of prejudice against AIDS victims.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29, 165-167.
- Dru, V. (2007).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prejudice : Effects of various self-categorization condi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 877-883.
- Duncan, L. E., Peterson, B. E., & Winter, D. G. (1997). Authoritarianism and gender role : Toward a psychological analysis of hegemonic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41-49.
- Elms, A. C., & Milgram, S. (1966).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obedience and defiance toward authoritative command. *Journal of Experimental Research in Personality*, 2, 282-289.
- Fisk, S.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pp.357-411). NY : McGrawHill.
- Forsyth, D. R. (1999). *Group Dynamics*(3rd Ed.). Belmont, CA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Frenkel-Brunswik, E. (1949). Intolerance of ambiguity as an emotional and perceptual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18, 108-143.
- Gaertner, S. L., & Dovidio, J. F. (1986). The aversive form of racism. In S. L. Gaertner(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pp.61-89). San Press.
- Higgins, J. (1965). Authoritarianism and candidate preference. *Psychological Reports*, 16, 603-604.
- Insko, C., Schopler, J., Kennedy, J. F., Dahl, K. R., Graetz, K. A., & Drigotas, S. M. (1992). Individual-Group Discontinuity from the Differing Perspectives of Campbell's 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 and Tajfel and Turner's Social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5(3), 272-291.
- Izzett, R. (1971). Authoritarianism and attitudes toward the Vietnam War as reflected in behavioral and self-report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 145-148.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1-27.
- Kaiser, C. R., & Miller, C. T. (2001). Stop complaining! The social costs of making attributions to discri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254-263.
- Katz, I., & Hass, R. G. (1988). Racial ambivalence and value conflict :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93-905.
- Kuhn, D., & Dean, D. (2004). Metacognition : A bridge between cognitive psychology and educational practice. *Theory and Practice*, 43(4), 268-273.
- Levinson, D. J., & Huffman, P. E. (1955). Traditional family ideology and its relation to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23, 251-273.
- Mackie, D. M., Devos, T., & Smith, E. R. (2000). Intergroup emotions : Explaining offensive action tendencies in an intergroup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606-616.
- Major, B. (1994). From social inequality to personal entitlement :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s, legiti-

- macy appraisals and group membership. In M. P. Zanna(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26, pp.293-348).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 McFarland, S. G., & Adelson, S. (1996). *An omnibus study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prejudic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Political Psychology.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 McFarland, S. G., & Adelson, S. (1997). *Toward of typology of prejudiced person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Political Psychology. Montreal, Quebec, Canada.
- McGarty, C., & Penny, R. E. (1988). Categorization, accentuation and social judgement,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 147-157.
- Noonan, J. R., Barry, J. R., & Davis, H. C. (1970). Personality determinants in attitudes toward visible dis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38, 1-15.
- Oakes, P. L., & Turner, J. C. (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r, Does minimal intergroup discrimination make social identity more positiv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295-301.
- Olzak, S., & Nagel, J. (1986). *Competitive ethnic relations*. New York : Academic Press.
- Passini, S. (2008). Exploring the multidimensional faces of authoritarianism : Authoritarian aggression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7(1), 51-60.
- Peterson, B. E., Doty, R. M., & Winter, D. G. (1993). Authoritarianism and attitudes toward contemporary social iss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174-184.
- Pettigrew, T. F. (1958). Personality and Socio-cultural factors in intergroup attitudes : A cross-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 29-42.
- Pratto, F., Sidanus, J., Stallworth, L., & Malle, B. (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ons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741-763.
- Rokeach, M. (1948). Generalized mental rigidity as a factor in ethnocentrism.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3, 259-278.
- Ruggiero, M., & Taylor, D. M. (1995). Coping with discrimination; How disadvantaged group members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826-838.
- Ruggiero, M., & Taylor, D. M. (1997). Why minority group members perceive or do not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 The role of self-esteem and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373-389.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 Sears, D. O., Freedman, J. L., & Peplau, L. A. (1985). *Social Psychology*(5th 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Inc.
- Sherif, M. (1966). *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 Their social psychology*.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Tabak, I., & Weinstock, M. P. (2005). Knowledge is knowledge is knowledg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and scientific epistemologies. *Canadian Journal of Science, Mathematics and Technology Education*, 5(3), 308-328.
- Tajfel, H. (1978). Social categorization,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 In H. Tajfel,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 Academic Press.
-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ylor, D. M., & Moghaddam, F. M. (1987). *Theories of Intergroup Relations : International Social Psycho-*

- 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 Praeger.
- Turner, J. C.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concept :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r. In E. E. J. Lawler(Ed.) *Advances in Group Processes : Theory and Research*, Vol.2. Greenwich, Conn : JAIP.
- Turner, J. C. (1987). A categorization theory. In J. C. Turner, M. A. Hogg, P. J. Oakes, S. D. Reicher, & M. S. Wetherell,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 A self-categorization theory*(pp.42-67). Oxford, England : Basil Blackwell.
- Turner, J. C., & Brown, R. (1978). Social status, cognitive alternatives and intergroup relations. In H.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 235-250). London : Academic Press.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New York : Blackwell.
- Turner, J. C. & Oakes, P. J. (1989). Self-categorization theory and social influence. In P. B. Paulus(Ed.),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2nd ed., pp.233-275).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Whitley, B. E., & Lee, S. E. (2000). The relationship of authoritarianism and related constructs to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 144-170.
- Whitley, B. E., Jr. (1998).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s independent dimensions of prejudice*. Paper presented at the 106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 Wimmer, A. (1977). Explaining xenophobia and racism : a critical revise of current research approaches, *Ethnic and Racism Studies*, 20(1), 17-41.

The Factors Influencing the Korean Adolescents' Attitude to Minority Groups

Kye-Min Ya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is study explor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Korean adolescents' attitude to minority groups. For this purpose, 3,185 Korean adolesc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including measures such as authoritarian personality tendency, Korean identity, feeling of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and attitude to foreign laborers, the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North Korean refugee, and Chinese Koreans in Korea. As the results,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was found as the most effective one among the three factors to explain the attitude to minorities in the Korean society. This results suggest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for the Korean majority adolescents has to primarily focus not only on the feelings of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but also on the vague fear toward minority groups by providing the objective information and neutral perspectives.

Keywords: *multiculturalism; intercultural sensitivity; realistic conflict theory; social identity theory*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3월 14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5월 24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5월 25일